

**대원정사 대작불사**  
 대원정사 조계종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 불자 공무원 '信바람' 났네

광역시·도청마다 불자회 결성... "신행 활기"

공무원 불자들의 '信바람'이 전국을 휘감고 있다. 지난 11월 강원도청 불자회가 결성돼 제주도를 제외한 8곳의 도청 불자회 창립이 마무리됐고, 오는 12월 20일이면 광주광역시청 불자회 출범을 마지막으로 전국의 도·광역시청에 불자모임 결성이 끝난다. 그야말로 공무원 불자들이 일으키는 신행바람이 전국을 휘돌고 있다.

면 충남(6개시·9개군), 충북(3개시·8개군), 제주(2개시·2개군), 광주(5개구) 등은 1곳(공주, 청주, 제주, 서구청), 울산(1개군·4개구), 인천(8개구·2개군) 등은 단위 기관불자회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



◇도·광역시청 공무원 불자회 분포도.

특히 이들 도·광역시청 불자회는 관내 단위 기관의 불자회 창립에 기폭제로 작용, 전국 방방곡곡에 '공불련 깃발'을 나누고 있다. 최근 100호 불자회를 탄생시킨 경찰 불교회와 함께 공무원 불자들이 '일터'를 생활불교의 마당으로 넓히고 있는 셈이다.

### 공불련, 개별 공무원 불자회 노력 결실

### "범종단 지도법사단 구성 취약지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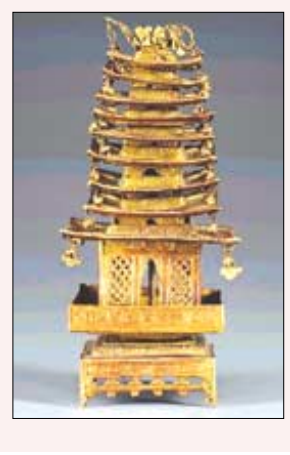
악했다. 이처럼 공무원 불자회의 눈부신 성장은 출범 3년차를 맞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공불련은 그간 개별적으로 신행활동을 해온 전국의 공무원 불자회를 한데 묶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불련은 △미창

립 기관 불자회원의 개별 가입 허용 △연합회 단위의 합동법회 및 연합수련회 △중앙사무국의 체계적인 지원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공불련은 또 월 2회 전국 단위 기관불자회 첫 총무단 회의를 갖고, 조직 운영을 권역별 중심 체제로 전환했다. 산하조직을 서울·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등 6개 권역별로 개편, 산하 지부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미창립 기관 불자회 창립을 유도해냈다.

공불련은 기존 재가불자 신행패턴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거사 불교'의 새로운 신행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지역 불교발전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남, 전남, 대전 등은 공무원불자연합회를 결성, 지역불교의 중심축으로 이미 부상했다. 공불련 안홍부 사무국장은 "초창기 감사원, 국정원 불자회가 연합회 결성을 주도하면서

### 수중사 금동제9층소탑 국내 첫 금제탑 확인

국내에서 처음으로 금제탑이 확인됐다. 수중사 석조 부조에서 출토됐던 '금동제9층소탑'(보물 제259-2호, 사진이 '금제9층소탑'으로 밝혀진 것. 이 탑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의 비파괴 분석결과 구리에 도금한 '금동제'가 아닌 '금제'로 나타났다. 비파괴 분석기인 이종형 X선형광분석기로 표면 분석한 결과 금(83.19%), 은(16.36%)이 주성분을 이루고 불순물인 구리(0.33%), 철(0.08%)이 혼입돼 있었다. 높이 12.9cm의 이 9층탑은 표면이 구리 빛을 띠고 기단부에서 청동 부식물이 관찰돼 금동제로 알려져 왔었다. 오유진 기자



### 조계종, 북한산 문제 내주 최종입장 결정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가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12월 12일 총무원회의를 열고 빠르면 다음주 중 최종 입장을 결정짓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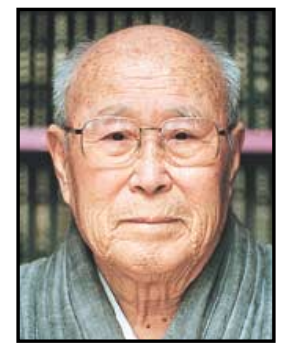


"빛으로 다시 오소서" 12월 4일 원적에 든 월하스님 영결식과 대비식이 10일 통도사에서 조계종 종단장으로 열렸다. 영결식이 끝난 후 법구를 대비장으로 이송하고 있다. 권연기사연 사진=박재원 기자

### 본원종 종정 태허 스님 원적 8일 연방사에서 종단장으로 영결식

본원종 제3세 종정 태허당 계한 대종사(사진)가 12월 6일 오후 1시 30분경 주석처인 예천 연방사에서 원적했다. 세수 88세, 법랍 75세. 태허 스님은 열반에 들기 전 "가도 가도 한이 없는 생명이 무엇이 새 로 있랴. 남(生)도 죽음도 그대로 나뉘다."라는 계승을 남겼다. 1916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난 스

님은 29년 상기사에서 경원 스님을 은사로, 동연 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이래 김홍사, 강릉 월정사, 문경 봉암사, 예천 서악사 등의 강원도 선방을 거치며 수행에 매진했다. 그러나 스님은 '대중의 근기에 맞는 쉬운 불교를 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89년 본원종을 창종해 지금까지 종정을 지내며 종도들로부터



종정과 신망을 받아 왔다. 스님의 영결식은 12월 8일 예천 연방사에서 종단장으로 열수됐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청소년 활동 점수인증제 도입 봉사·탐험·문화활동 진학·취업 우대

###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 포교에 활용해야

청소년 활동 종합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 계획'이 12월 6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불교계 청소년포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2007년까지 시행되는 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따르면 각종 봉사·탐험·문화예술활동 등 영역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점수로 인정돼 향후 진학 및 취업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기초자치단체 단위별로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자원

봉사센터 등 청소년 관련서비스 기관과 단체를 통합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사람별로 이뤄지고 있는 여름·겨울수련회와 템플스테이 활동 등을 불교문화탐방과 체험활동으로 분류가 가능해져 청소년 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찰과 불교계 청소년관련 단체 역시 청소년 활동 종합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 그동안 불자청 소년들에게 한정되어 있던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이 일반 청소년들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호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원:(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교문화유산을 상품화하기 위한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정재훈(65) 석좌교수는 12월 9일 '(가칭)문화유산 보존활용 계획단' 창립제안서를 경주시에 제출했다. 정 교수는 제안서에서 각계 전문가와 행정관이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 계획단'을 설립해 경주시의 불교 문화유산 종합보존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체험상품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주의 불교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1970년대 경주교본 발굴조사단이 계획했던 황룡사9층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남산을 비롯 감은사터, 신라고찰 가림사, 선무도 수련장인 골굴사, 노천박물관 경주남산 등을 연결하는 불

**불교문화의 상품화**

목탑 복원을 비롯 신라 불교유적 정비, 신경주역 박물관 등을 건립해 경주의 불교문화를 체험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준 경주대 관광학부 교수도

전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 외국인들에게도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관광상품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체험관광이 아닌 대부분이 스키치나가며 잠깐 보고 마는 형태이다. 불교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관광업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교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을 사찰과 연계해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한솔 銀 세라믹 매트**

- 한솔 銀 세라믹 매트 · 강력한 銀의 항균력 -

- 은과 접촉하여 6분 이상 살수 있는 세균은 없다고 합니다.
- 銀은 현재까지의 실험결과 지상의 거의 모든 단세포 균균을 살균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앞선 기술력의 (주)한솔의료기의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한솔 銀 세라믹 매트 / 왜? 비싼 「銀」을 사용했을까요? .....

서양에서는 은(銀)을 사용하여 병의 감염을 막아 왔으며, 은전(銀錢)을 항아리에 넣어 우유의 변질을 막고 은상자속에 음식을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군, 소독용 접시를 은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은을 자연항생제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분사 은은 귀금속으로서 그 값이 비싸서 일반 대중은 사용할 수가 거의 없었고 왕궁에서는 은이 인체에 미치는 특이한 점을 이용하여 모든 식기 및 장신구를 은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중세기 때 유럽지역에 '페스트'가 창궐해도 왕궁에는 단 한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한솔의료기에서 은을 소재로한 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수면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한솔 銀 세라믹 매트 내부에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300개의 고급 세라믹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銀세라믹 매트(더블)  
· SIZE: 200cm×140cm · 소비자가: 199,000원  
▷ 銀세라믹 매트(싱글)  
· SIZE: 195cm×100cm · 소비자가: 109,000원  
▷ 銀세라믹 세트(더블+싱글)  
· 소비자가: 298,000원

www.kysystem.co.kr ★ 주문전화 080-903-8000